

“불교 행상의식 공동체 축제” “고조선 건국신화 불교 영향”

동아시아 비교문화 국제회의 '동아시아의 불교문화'

한·중·일 학자 2백명 참가
'대장경 왕래...' 등 논문 19편 발표

한중일 세 나라의 전공학자 200여명이 참가하여 만든 국제학술모임인 동아시아비교문화국제회의의 제4회 학술회의가 '동아시아의 불교문화'를 주제로 15일~17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렸다. 96년 창립이후 매해 중국 일본 등을 돌며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동아시아비교문화국제회의의 이번 학술회의에는 한중일 고승전의 비교, 월남의 불교, 동아시아의 미륵사상, 대장경 왕래의 문화사적 의의 등 19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은 일찍이 극장으로 불타만큼 많은 종교행사와 함께 절기를 만들어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불교의 세시풍속에 음악 연극 잡기 등 인간의 연희와 함께 영신행사(迎神賽社) 활동에도 참가했다. 불상을 보거(寶車)에 태우고 도시의 거리를 순행하는 의식으로 백희연출을 곁들여 불상을 군중들에게 보여주며 불교사상을 형상화해 선양하고자 한 '행상의식'이 우리나라에는 목불의식으로 대치된 이후에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의식과 제의가 바로 연극문화의 핵을 이루고 있던 중세의 문화풍토에서 가두연희 즉 퍼레이드는 치극문화(治鬼文化)를 불사활동에 동원했고 극장의 역할을 겸비했다. 불교

의 문화를 형성해 왔다. 또 부처님 오신날 전국사찰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봉축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가두행렬이야말로 유구한 역사를 갖고 전승돼온 행상의식의 형태이다. 행상의식을 참조해 보자 많은 전통 연희와 장엄물 산거(山車)와 같은 무대의 복원 등이 재현되길 기대한다.

◇불교의 동진(東進)과 신화의 변용-동아시아 건국신화를 중심으로- 조현철 강사(동국대): 한국의 경우 불교의 영향을 받은 신화는 고조선 건국신화 뿐이다. 환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산스크리트어 Sakrodevendra를 음역한 석제환인(釋提桓因陀羅)에서 온 것이어서 그 안에 이미 불교적 의미가 부여돼 있었다. 본래 고유의 천신이었을 환인의 자리가 불전에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신격인 제석천으로 대체된 것은 고조선 건국신화의 불교적 변용의 양태다. 고조선

발표자	논문 제목
해주스님(동국대 교수)	동아시아의 화엄신앙과 사상 형성기 교류를 중심으로
홍우연 특목 교수(베트남 하노이대)	월남의 불교
정청구 강사(서울대)	한중일 고승전의 비교
강덕희 교수(일본 산지대)	한국사회의 변화
장철준 교수(중국 북경시대)	산수상의 의미성과 불교
지광스님(농민선원 주지)	한중불교의 현실과 동아시아
카타지마 유수케 교수(일본 명성대)	한중일 삼국의 '연(緣)'
고승길 교수(중앙대)	한국 사자주의 원류
공동정 교장(대만 불광대 남화학원)	사원의 조직과 민의의 변화
山口直仁 교수(일본 성성대)	동아시아의 미륵사상
山口教史 교수(일본 구주 대국대)	선주(善珠) <문인학사경 소>에 대하여
인권환 교수(고려대)	중세 한중일 '시선(詩眼)의(詩眼一如論)' 서설
홍기삼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의 2방향
탕일계 교수(중국 북경시대)	도가중현학(道家中顯學)에 대한 남북조불교의 의의
김일기 교수(일본 상명대)	한일의 장승(張承)과 불교
조동일 교수(서울대)	대장경 왕래의 문화사적 의의

신화는 신라에 의한 통일 이후 형성된 삼한일통이라는 정신사적 호를 안에서 고조선이 부각되면서 통일이 불력의 소산이라는 승려들의 이념이 투사된 것이다. 이러한 의식 위에서 고조선의 신화가 불교적으로 재해석되면서, 무교의 천신이 불교의 제석천으로 교체돼 재구성됐다.

◇고려시대 시(詩)에 나타난 '연(蓮)'의 일고찰-박기자 교수(일본 오분대): 고려시대 시문에 나타나는 연꽃은 백색 청색 홍색 등이만 중국의 시문에 보이는 '백련' 같은 꽃은 없다. 다만 중국 남북조 시대의 해원이 조직한 결

사인 '백련사'를 의미하거나 허여 청련이 자란다고 말한다든지 사원에서 화려한 흥취를 그리는 등의 상징성으로 나타난다. 이는 연꽃의 색깔에 구애받기보다 불교적 청정함의 상징인 연꽃의 본질을 중시했던 고려 문인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고려 이색 이규보 등의 문인들이 연꽃을 선심(禪心)인 청아함을 가지고 있는 꽃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은 선심인 연을 통해서 번거로운 속세에 있더라도 맑게 사는 것을 바라, 며 연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n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미국불교계 호스피스

아미타 호스피스 등 홈페이지 개

자원봉사 훈련·에이즈 정보 등 제공

죽음에 대한 종교적 관심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한국불교계가 장묘 영가천도 등으로 인간의 죽음에 다가선 반면 미국불교계는 편안한 죽음을 돕는 호스피스(Hospice) 활동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미국불교계 호스피스는 총 7곳. 이중 아미타 호스피스(Amitabha Hospice Service), 선(禪) 호스피스(The Zen Hospice Project) 등이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미타 호스피스는 불교적인 관점과 방편으로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이트. 이 사이트는 샌프란시스코 불교계가 1987년 호스피스 사업을 전개하면서 만든 비영리 법인으로 자원봉사자 훈련, 유관 단체들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계적인 호스피스 모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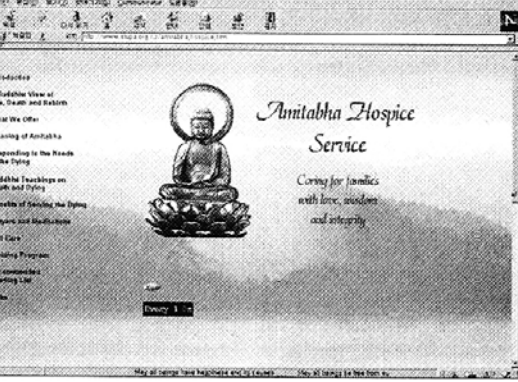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문헌정보'에는 죽음과 호스피스에 관한 많은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뉴스레터 '패러다임(Paradigm Magazine)'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체험과 환자들의 수행생활을 엿볼 수 있다.

'부처의 죽음'도 미국 불교인들의 에이즈에 관련한 봉사활동 상황을 소개하는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봉사활동과 불자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c@buddhania.com)

△Amitabha hospice service <http://www.stupa.org.nz/amitabha.hospice.htm>

△The Zen Hospice Project <http://www.libertynet.org/rhd/Paradigm/Paradigm2/zen.html>



◇종교학회 불교분과 제6차 월례발표회가 9일 송파대에서 열렸다.

“정도전의 불교교리 비난은 인과론 제대로 몰랐기 때문”

허정희씨 '인과론에 대한 유불대론' 발표

“정도전은 <불씨잡변>에서 인과법을 부정하고 유교의 음양오행설을 설하고 있는데 이는 음양오행의 원리가 인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학회 불교분과(위원장 해주) 제6차 월례발표회에서 '인과론에 대한 유불대론-합허와 정도전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허정희

강사(동국대)는 유불사상이 대립하던 조선초 함허스님과 정도전이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인과론의 논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에 착안, 둘의 인과론에 대한 의견을 비교분석했다. 허 강사의 비교에 의하면 업과 운회, 내세관을 설명하는 불교의 인과론은 율법을 통한 지속적인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데 정도전은 음

양오행의 원리로 인과가 적용되지 않는 현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운회에 대한 정도전과 함허의 차이는 첫째 삼봉이 유교의 음양과 혼백설을 들어 정신사설설을 주장한 반면 함허당은 불교의 진여심을 내세워 정신불멸 전제, 둘째 삼봉은 인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기의청탁 후발설을 가지고 삼라만상의 참차부제를 설명했지만 함허당은 법신불멸과 업감을 가지고 삼세인과 죄보보음이 거짓이 아님을 설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사포 아즈미 연구원(동양대 동양학연구소)은 '화엄의 중도의'를 발표했다.

강지연 기자

대한불교진각종(총무원장 성호)은 논문 중간 평가작업으로 제1회 진각논문대상 발표회를 14일 통리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응모한 30여편의 논문 가운데 '초기불교와 요기수트라'의 선정관에 대한 비교연구(임승택), '나카르주나의 논리에 있어서 성언람의 필연성 여부'에 대한 고찰(강종원), '조선 후기에 간행된 다라니경과 진언집에 대한 연구'(남희숙), '인도불함에 담긴 상징성에 관한 연구'(권기현), '적후의 진실강요에 나타난 세계기원론 비판'(김성관), '아비달마 불교의 수행체계 연구'(강명희) 등 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진각종 제1회 논문대상 수상작 6편 선정

24일 의상법사 국제학술회의
낙산사(주지 지홍)와 불교춘추사는 제1회 의상법사 국제학술회의를 24일 오전 10시 강원도 양양 낙산비치호텔에서 개최한다.

“동아시아에서의 의상의 관음신앙과 낙산사”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회의는 의상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조명하는 첫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학술회의에는 민영규 교수(연세대)의 '의상의 생애와 선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의상전의 사상-김지현 원장(대한 전통불교연구원) ▲의상의 화엄사상-정병삼 교수(숙명여대) ▲해인사매를 통해 본 지엄의 사상-정순일 교수(원광대) ▲낙산사 흥련암과 불경거관음전-조영록

학술단신

교수(동국대) ▲법계도기 텍스트의 문제-사포(일본사학자) ▲의상대사 창건사찰에 나타난 용신앙-조용현 강사(원광대) ▲소리로 깨닫는 의상의 관음신앙-최석환(불교춘추 발행인) ▲낙산사의 법일-최현식 법사(낙산사) ▲낙산사의 관음신앙과 보타락은 한 뿌리-계승스님(중국 보제사 주지) 등이 발표된다.

능인불교연구원 창립학술회의

능인불교연구소는 '불교 수행의 이해'를 주제로 창립 학술회의를 28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일본오사카 한국사찰 관음사 낙성법회 및 일본 불교 성지순례단 모집

일본오사카 한국사찰 관음사 낙성법회 및 일본 불교 성지순례단 모집

귀의 삼보 하옵고. 일본은 우리나라 불교와 같은 대승불교권의 불교 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불교국가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서로 답사와 교류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뿐더러 특히 일본내에 한국사찰 건립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 있기에 일본 오사카에 한국사찰 관음사(주지: 원연)가 한국 스님의 원력에 의해 조성되어 오는 12월 5일 성대히 낙성법회를 갖습니다.

이에 한국불교법사대학에서 주최하고 (주)로얄관광에서 주관 협력하여 불교계 원로급 증명법사님을 모시고 일반 불자님들과 함께 본 법회참례와 아울러 일본 불교 유명사찰 성지순례를 갖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본 행사에 여러 불자님들을 정성껏 모시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원로급 초청인사
 - 강석주 큰스님(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고문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위원)
 - 이법홍 큰스님(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총재 대한불교 원효종 종장)
 - 제백암 큰스님(대한불교 조계종 전통종, 신원사 조실)
 - 배일공 큰스님(대한불교 원효종 종장)
 - 황진경 큰스님(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 박도암 큰스님(대한불교 대승종 종장)
 - 신인왕 큰스님(한국대승불교연맹 종장)
 - 오정록 큰스님(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회장)
 - 신묘봉 큰스님(한국불교법사대학 학장)
 - 박지연 대법사(한국불교법사대학)

- 일본 오사카 소재 최대규모 한국사찰 관음사 낙성 및 점안법회 봉행
- 일본 불교 유명사찰 성지순례 참배 행사 개최

“일본에서 최대규모로 조성된 한국사찰 관음사 낙성법회 동참과 더불어 일본 불교 성지순례를 통해 불교의 행지를 넓혀 가도록 정성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지순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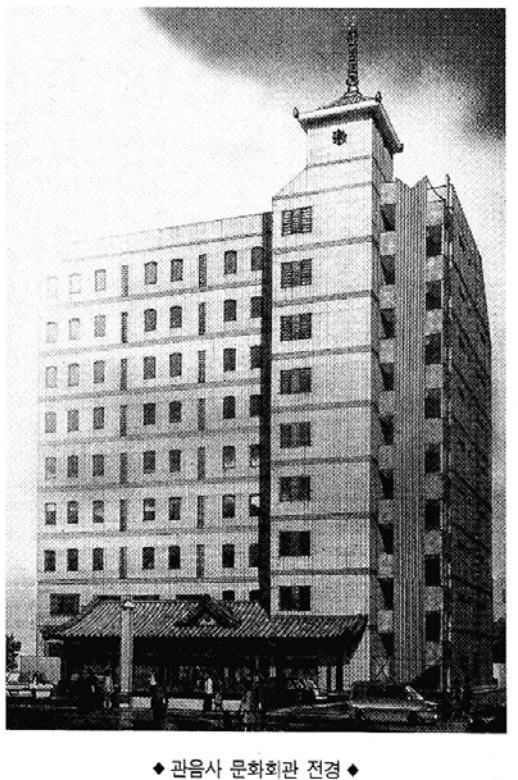
날 짜	도 시	세 부 일 정
제1일 12월 3일 (금)	서울 오사카 교 토	김포(부산 김해)공항 출발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 도착 동대사, 사승공원, 법통사
제2일 12월 4일 (토)	교 토	금각사, 청수사, 광명사 등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소장)
제3일 12월 5일 (일)	오사카	공식일정 오사카 관음사(낙성 및 점안법회 참석)
제4일 12월 6일 (월)	오사카 서울	사천왕사, 오사카 성, 신사이바시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 출발 서울 김포(부산 김해)공항 도착

- 일 정: 1999년 12월 3일 ~ 6일 (3박 4일)
- 목 적 지: 오사카 관음사 및 유명사찰 성지순례
- 동 참 비: 1인당 98만원(신청금 20만원 포함)
- 접수마감: 1999년 11월 10일 까지

문의 및 접수처

- 서울: 한국불교법사대학 ☎ (02) 720-1836, 733-1959 FAX 737-5305
- 청주: (주)로얄관광 ☎ (0431) 222-3331, FAX 222-3615
- 원주: 관음순 ☎ (0371) 731-1617, HP 011-378-8535
- 충주: (주)로얄관광 ☎ (0441) 848-6999, FAX 848-7010
- 한국불교법사대학:
(우)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후원: 법사불교신문
- 협찬: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 관음사 문화회관 전경 ◆